

메이지가쿠인(明治学院)의 전쟁책임, 전후(戰後)책임 고백

저는 일본 패전 50주년에 즈음하여 메이지가쿠인이 전쟁에 가담한 죄를 되돌아 보고자 합니다. 주여, 먼저 주 앞에 엎드려 이 죄를 고백합니다. 더불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이웃나라 국민 모두에게 사죄하고자 합니다.

패전 50주년이 되는 지금에도 전쟁의 참상은 결코 잊혀지지 않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또렷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종군위안부문제', '731부대가 자행한 생체실험' 등등, 아직도 그 상처는 생생한 채 그대로이며, 당시의 생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이 범한 전쟁범죄는 이웃나라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주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 메이지가쿠인도 일본에 속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결코 그 책임에서 벗어 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학(私学)은 국가권력에 대해 거스르거나 독자적인 입장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지가쿠인은 건학 이념인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정신을 최대한 지키고자 노력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침략전쟁의 와중에서 전쟁에 협력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사실은, 주 앞에서 절대로 변명할 길이 없는 역사입니다.

당시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저희 후학들이 그 때의 지도자들에게 '돌을 던질' 자격은 물론 없을 것입니다. 역사의 인물과 그 공동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는 오로지 우리 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뿐이라는 사실은 더 이를 나 위도 없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침략을 당했던 이들, 억압을 받았던 이들, 그리고 순교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제 저희들은 전쟁의 참혹한 고통을 더욱 폭넓게, 더욱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저희들로 하여금 그 때의 상황을 당시보다 더욱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이에 그 시대 지도자들이 범한 과오에 대해 오히려 저희가 나서서 주 앞에 고백하고 모든 이들에게 사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역사의 그들을 단죄하기 위함이라기 보다 저희들 자신이 같은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정부는 종교계를 통합하는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1939년에 제정한 이른바 '종교단체법'에 근거하여, 1941년 모든 기독교 교파를 하나로 통합한 '일본기독교단'을 결성토록 했습니다. 이 '교단'의 통리(統理) 도미다 미츠루(冨田満)는 직접 '이세신궁'(伊勢神宮)을 참배하기도 하였고,

한국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평양신사'를 참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1938년). 이 일로 인해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순교하였으며, 그것이 전후(戰後) 한일 양국 기독교인 사이에 깊은 앙금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길 없습니다. 한국과 타이완에서는 신사참배 문제로 인하여 많은 기독교계 학교가 폐교의 기로에 섰던 것입니다. 도미다 미츠루는 전쟁 중, 그리고 전후에도 수년간에 걸쳐 메이지가쿠인의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또한 1939년 메이지가쿠인 학원장으로 취임한 야노 츠라키(矢野貫城)는 궁성요배(宮城遙拜),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어진영봉대(御眞影奉戴) 등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야노 츠라키도 주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은 채 패전 후에도 일정기간 학원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메이지가쿠인은 오늘날까지 주 앞에 그 죄를 고백하지 않았으며, 고통을 당한 이들에게 사죄를 한 적도 없습니다. '날아라, 일본기독교단호' 라는 구호아래 모금하였던 전투기 헌금, 또한 기관지 <교단시보>(教團時報)에서 '순국이 곧 순교'(殉國即殉教)라는 논리를 내세워 일본기독교단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천황제 국가에 복종하도록 강요했을 당시 도미다 미츠루는 '교단'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당시의 제국주의적 사회풍조, 그리고 그 강압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조직을 지키려고 노력한 지도자들의 고뇌를 고려한다고 해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일본의 국가적 범죄에 스스로 가담했다는 죄과를 결코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침략전쟁에 부득불 협력해야만 했고, 학도병으로 전장(戰場)에 내몰린 당시의 많은 학생들을 생각하면, 한 사람의 교사로서, 학원장으로서 깊은 슬픔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과 타이완 출신 학생들을 포함한 숱한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야 했던 당시의 교사들에게도 깊은 고뇌가 있었으리라 역시 생각합니다. 그러나 '패전'이라고 하는 주의 심판이 내려진 시점에서 당시의 학원지도자들에게 당연히 자신들의 죄과에 대한 반성과 고백이 있어야 했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후에도 반성과 사죄가 명확히 표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침략전쟁으로 사망한 일본의 전사자들을 '영령'(英靈)으로 모시고자 하는, '영령송배사상'이 메이지가쿠인 안에도 잔존해 있었습니다.

당시 메이지가쿠인 이사장, '건학 정신'을 지키고 적극적으로 선양해 나가야 할 위치에 있던 다카미 죠우지(田上穰治)는 국가의 공권력이 추진하던 '영령참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전쟁 당시 도미다 미츠루 등이 범했던 과오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죽은 자를 신으로 숭배

하는 '우상숭배'로서, 성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죄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죄가 전후의 메이지가쿠인에서도 계속 이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전쟁책임' 문제는 '전후 책임'의 고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는 한 저희 메이지가쿠인의 앞날은 계속 어둡기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패전 50주년을 맞는 지금, 전쟁 당시 메이지가쿠인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세가와 신(長谷川信)과 같은 양심적인 학생이 있었다는 사실에 저희는 큰 희망의 빛을 봅니다. 전쟁터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하세가와 신의 고뇌와 '천황의 나라'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그의 내면적 기개는 예수 그리스도에 기반을 둔 메이지가쿠인이 나아갈 길, 그 지침을 굳건하게 제시해 준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세가와 신과 같은 삶을 살고자 고뇌한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며, 건학 정신을 새롭게 재확인하고자 하는 메이지가쿠인은 야노 츠라키, 도미다 미츠루 등이 선택했던 '넓은 길'이 아니라, 당시의 학생이었던 하세가와 신이 택한 '좁은 길'을 쫓아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또 다시 일본은 '국제공헌'이라는 명분 하에 해외파병을 행하였으며, 현대식으로 포장된 '순국사상'이 서서히 일본사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가운데, 다시 전쟁희생자를 '영령'으로 숭배하고자 하는 위험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엇보다 우선 가장 가까운 메이지가쿠인이 범한 전쟁책임, 전후 책임을 깊이 자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피해를 준 이웃나라의 국민들에게 사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연한 자세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빌립보서 2장 15절, 한글성서 개역개정판) 더욱 힘을 길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많은 이들에게 사죄합니다. 메이지가쿠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창출하기 위해 한층 더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1995년 6월 일본 패전 50주년에 즈음하여
메이지가쿠인 학원장
나카야마 히로마사(中山弘正)

한글번역: 서정민(메이지가쿠인대학 객원교수)